

# 산재예방 새 패러다임 모색 대한산업안전협회,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세미나

취재, 사진 | 임동희 기자



대한산업안전협회가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을 맞아 지난 7일 코엑스 컨퍼런스센터에서 '산업재해감소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근 산업안전분야에서는 산재예방기법이 산업현장의 변화에 맞는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이번 세미나는 말 그대로 이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보기 위해 마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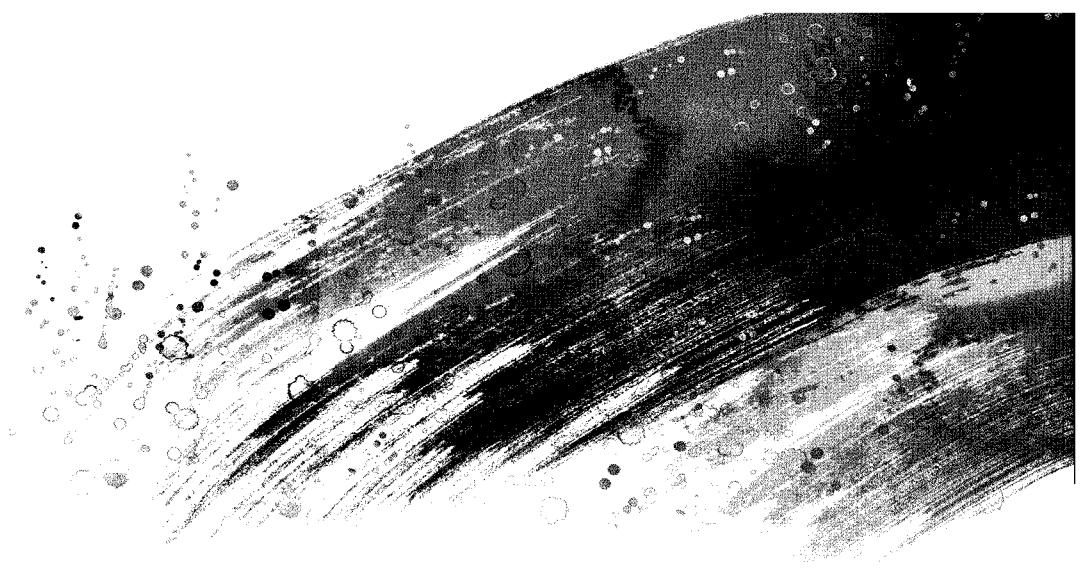
이날 세미나에는 학계와 안전보건전문가 등 총 400여명이 참석, 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각계의 뜨거운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 세미나 장소의 협소함 때문에 참석을 못하고 돌아간 이들도 상당수 있었을 정도였다.

세미나에서는 충주대학교 백종배 교수가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백 교수는 현재의 산업안전 제도는 결과지표를 중시하면서, 재해가 발생하게 된 중간 과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백 교수는 위험성평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업장의 위험요인 뿐만 아니라 안전관리자의 활동, 사업장의 안전문화까지 객관화·정량화시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개선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백 교수는 위험성평가의 범주 안에 손실방지의 개념까지 포함시켜, 안전관리를 하면 경영상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들게끔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 합병호 사무관은 '노동부 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에서 위험성평가 및 산재예방 100일 특별계획 등 최근 고용노동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여기에 안전보건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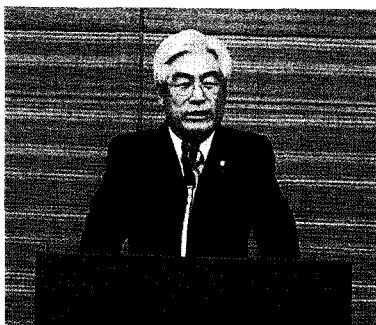


마지막 시간에는 '선진안전경영시스템'을 주제로 삼성전자(주) 전재호 부장의 발표가 진행됐다. 전 부장은 제조업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삼성전자의 예방시스템을 타 사업장이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이처럼 이번 세미나는 새로운 산재예방정책의 방향에 대해 정부와 학계, 산업현장 안전담당자의 의견을 모아보고, 그의 실천 결의를 다지는 매우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대한산업안전협회의 백일천 회장은 "산재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장에 맞는 산업안전의 기법을 개발·발전시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세미나에서 나온 방안들이 사업장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 ■ Interview



### ■ 대한산업안전협회 백일천 회장

정부, 기업, 민간재해예방기관들이 산업안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거기에 따른 성과는 기대만큼 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재해율은 최근 몇 년째 계속 0.7%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올해 상반기에는 오히려 재해가 늘어나면서 정부, 기업, 우리 모두의 책임감은 더욱 커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여러 주체들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 여러 제도적이고 과학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산업안전 분야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고 계신 분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이 제시되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그 해결방안이 사업장에 조속히 적용되어 산재예방에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길 기대합니다.



### ■ 충주대학교 박종배 교수

위험성평가는 안전활동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표현하게 된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점에서 안전관리는 물론 안전분위기까지 측정되는 위험성평가가 전체사업장에 정착되어진다면 재해율은 큰 폭으로 감소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해율 산정방법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결과지표를 위주로 하고, 보상을 위한 척도로 사용돼왔던 지금의 재해율은 최근의 재해형태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사고예방 중심의 재해율 산정법을 개발하고 이를 조속히 산업현장에 적용시켜야 할 것입니다.

# KISA 안전그림·포스터 공모전 시상식 개최

취재, 사진 | 연습기 기자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세미나가 한창 진행되던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센터. 이곳에서 유치원에 다닐 법한 아이들과 신사숙녀로 갓 들어선 학생들의 모습들이 눈에 띄었다. 이들은 이날 열린 '2010 KISA 안전그림 포스터 공모전'의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어린이들이었다.

대한산업안전협회는 미래 사회의 주역인 우리나라 어린이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올바른 안전의식을 확립시켜 주고자 지난 5월부터 제7회 2010 KISA 안전그림·포스터 공모전을 진행해 왔다. 전국의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어린이 약 2,500여 명이 접수하여 유치부, 초등부저학년, 초등부고학년 등 3개 부문에서 열띤 경쟁을 벌인 결과 각 부문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입상, 기작 등 총 423명이 최종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공모전 취지인 "어린아이들에게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주기"를 반영하듯 공모전에서 안전을 어린이들만의 시각으로 풀어낸 작품들이 다수 출품됐다. 안전모를 꽂씨로 표현해 널리 흘날리는 모습, 월드컵을 생각해 안전모를 골대로 표현한 작품, 안전을 햇님달님 이야기로 풀어낸 작품, 안전표시를 본뜬 동전을 저금통에 넣는 모습 등 아이들만의 상상의 나래들이 이번 공모전을 통해 유감없이 선보였다.

심사는 총 3차례 걸쳐 진행되었으며 최종 심사를 맡은 한국미술협회 김순영 이사는 "수상작들은 안전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재미있는 기법과 순수하고도 독창적인 표현방법, 안정적인 화면구성을 성실히 표현했다"라며 "또 안전에 대한 메시지 전달면에서도 탁월함이 돋보였다"라고 평가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각 부야 수상자를 대표하여 황성우 ㈔동국미술협회 회장과 김기현 ㈔한국미술협회 회장, 정희근, 허민발 등을 수여 받았다.

**산업재해 감소로 안전한 세상은 패러다임의 변화**

일시: 2010년 7월 7일 오후 2시 장소: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센터 주최: 대한산업안전협회



###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 황정윤



처음 미술학원 원장선생님한테 대상소식을 들었을 땐 긴가민가했고, 그냥 상을 하나 받았구나 하는 정도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전국 대상이라고 어른들이 말씀하시니까 '아 내가 너무 큰상을 받게 된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큰상을 받게 되었으니 앞으로 산업안전에 대한 안전의식 만큼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 투철할 것 같습니다. 꼭 산업안전뿐 아니라 언제 어디서건 안전에 대해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양호연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자마자 이런 큰상을 받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안전모를 쓴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안전모는 우리 가족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그림이 일하시는 아저씨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저에게 이 상은 더욱 큰 의미가 될 것입니다.

### 유치부 금상 차한빛



저는 동전 하나를 저금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저금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안전을 저금하면 행복이 쌓여요"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저금하는 동전 하나에는 나름대로의 커다란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전을 저금한다는 마음으로 안전을 생각한다면 위험한 상황은 비켜갈 것이고, 가족의 행복은 커다랗게 쌓여갈 것 같아 그림으로 표현해본 것입니다. 공모전을 통해 가족 모두가 안전의 중요성과 행복을 지킬 수 있는 생각들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을 항상 생각하겠습니다.

### 심사평(김순영 한국미술협회 서양화2분과 이사)



제7회 2010 KISA 안전그림 포스터 공모전에서 어린이들의 참신한 작품들을 만나보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작품들은 우리생활 속에 숨어있는 안전사고에 대해 잘 이해하고 표현한 그림들로 창의성, 색채표현 및 구성능력, 구도 및 완성도 등 엄격한 기준을 고려하여 선별하였으며, 앞으로 더욱더 새로운 아이디어로 어린이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생활 속에 실천되기를 바랍니다.